

테크노세미켄, 식각액 타고 “뽕뽕”

현대증권, 2006년 식각액 매출 37% 증가 전망 ... 주가 2만원 근접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재료 생산기업 테크노세미켄이 영업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도약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만원대 주가에 성큼 다가섰다.

코스닥시장에서 테크노세미켄은 12월6일 장중 52주 신고가인 2만200원까지 오르며 2만원대 진입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환율 부담에 따른 시장약세 전환으로 오름폭이 줄어들며 6.5% 오른 1만8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3/4분기 안정적 영업실적 달성과 함께 최근 설비증설에 따른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주가상승 모멘텀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증권은 테크노세미켄에 대해 <강력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주가도 기존 대비 52.4% 올린 3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반도체와 LCD 등 전방산업의 뚜렷한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연평균 37.7%, 5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과점적 시장지위와 탄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23.7%의 고수익구조가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출성장의 주 기반은 TFT-LCD용 식각액으로 2006년에만 전년대비 3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증권은 테크노세미켄이 식각액 국내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hin 글래스 설비 증설을 위해 최근 136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한 결정도 성장성 부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민후식 연구원은 “2007년 하반기에 관련 4개 라인이 모두 가동되면 월 36억-40억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2007년과 2008년 관련 부문의 매출이 각각 187억원, 2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 속에서 전방기업들의 단가인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6>